



《픽션-톨: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능동적 아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개의 장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카이브이고, 하나는 전시이죠. 우리는 아카이브의 목록과 그것이 재현(re-present)된 전시장을 오가며 동시대 한국미술의 한 단면을 향해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여정에서는 ‘픽션’이라고 하는 북극성을 좇아 이리저리 뱃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픽션은 눈에 보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무어라 형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허구는, 아마도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픽션을 부여하기 위해, 즉 드러나지 않은 성좌를 예측 불가능하게 그려보는 여정을 위한 흔적일 뿐입니다. 픽션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긴 여정은 보이지 않는 조류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바람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잔뜩 끼 온갖 방향으로 헤맬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전시장에 놓여 있는 사물은, 비록 스스로는 아무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요청하고 있으니깐요. 한 가지는 말해두고 싶네요. 이 전시는 가장 유물론적이면서도 가장 사변적인 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절묘하게 섞여 들어가는 하나의 틈을 찾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긴장을 풀고 그들의 손짓에 몸을 맡겨보도록 하죠!

이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아마도 책일 것입니다. ‘동시대 미술’을 ‘픽션’이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는데 왜 책을 경유해야 했을까요? 엄밀히 말해 이 전시가 주목하는 것은 책이라기보다는 출판이라고 해야 정확할겁니다. 책은 출판의 한 결과물의 형태겠죠. 출판은 그 자체로 하나의 허구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콘텐츠를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행위이며,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기능하는 실체의 형식, 매체를 선택하고 유통의 시스템(그리고 시스템 밖에서의 우연)까지를 상상하는 총체적인 절차를 이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출판에 내재한 근본적인 의지는 하나의 가능한 세계를 점쳐보는 픽션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출판은 픽션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것입니다. 다만 그 개별의 성격은 요소요소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겠지만요.

시각예술가들은 흔히 말하는 작품과 전시 이외에도, 꽤나 중요해 보일 정도로 출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매체의 사용이나 기능에 관심이 많은 이들, 또 대안적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믿은 이들이 그러했었죠. (흔히 이들을 아방가르드라고도 불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출판에서 작품과 전시와는 또 다른 픽션을 읽어내고, 담론과 주의(-ism)에 뒤따르지 않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이제껏 기존의 미술 언어로는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던, 혹은 무관심했던 다양한 움직임들을 가시화시켜 줄 것입니다. 또 ‘새로움’이나 ‘동시대’,



‘간학계’나 ‘탈매체’, ‘협업’과 ‘다윈’처럼 공회전하던 여러 맥락을 맞물리게 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픽션을 향한 출판의 의지라는 것은 시대와 여러 예술의 범주를 가로지르는 아주 흥미로운 토픽이니까요.

이번 전시는 “작가에 대한 것이 아닌 작가가 만든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에서 선별한 출판물을 목록화한 아카이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1층 로비에 설치된 큰 TV화면의 웹페이지가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출판물의 사진과 객관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저는 전시장을 다 둘러보고 이 웹페이지를 살펴보기를 권해드리지만, 뭐 그건 그냥 제안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몇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가가 만든 출판물”에 대한 공식적인 목록이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과 전시를 조직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인사미술공간과 아르코, 아트선재센터, 아트스페이스풀과 같은 아티스트 퍼블리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의 소장자료와 더북소사이어티 등의 사적인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씨앗들은 아직 데이터화되지 않은 사적인 영역으로 뺏어 나아갔습니다. 혹은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알려준 정보로 새로운 네트워크의 씨앗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리서치는 이제 막 한 발을 내딛었을 뿐임을 상기시켜드려야겠군요. 이에 따라 전시 기간 중에도 아카이브 웹사이트의 목록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전시장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원히 불완전한 목록일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단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목록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전시장에는 약 200여권의 다종다양한 출판물들이 모여 있고, 그것을 모두 다 꼼꼼히 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전시장에서 대부분의 출판물을 굳이 열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것을 모두 살펴보라는 독서광적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이 전시장에서 단 하나의 기막힌 조우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모든 목록을 꿰뚫는 것보다 훌륭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 당부 드릴게요. 책은, 대부분 아주 약하고 섬세할 터이니 너무 거칠게 다루주지는 말아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장을 둘러볼까요? 그 전에, 이 안내문과 함께 비치된 fldjf studio의 홍보물도 꼭 챙겨주세요. fldjf studio는 비물질적인 것을 재현하기 위해 박보마가 설립한 일종의 매개자인데요, 곧 물질적인 무언가를 제작하고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하네요. 어떤 대상의 질감이나 그것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 등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는 사적인 경험과 감각은 물질적인 재현을 통해서만 언제나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fldjf studio는 오직 사변적인 차원에서만 실재성을 확보하는 규칙과 절차를 구축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합니다. 때문에 그의 출판은 기존의 출판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지지체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죠.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이번 전시는 지하층에 2개, 2층에 3개 등 총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카이브 목록에 대한 제 나름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그것은 ‘픽션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지하층의 섹션 F는 “책 혹은 웹 등 대안적인 시공간의 인터페이스를 미학적으로 다루며 그 자체로 픽션을 자처하는 단독 출판물”입니다. 두루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속하는 많은 작업들은 허구적 내러티브, 즉 소설과 같은 텍스트-쓰기의 형식을 가집니다. 혹은 대안적 시공간이라는 매체적 조건을 이용해 어떤 규칙을 자처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아티스트 북(artist’s book)’이나 북웍스(bookworks)’ 등이 여기에 연관되지 않을까 합니다. F는 이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섹션의 출판은 스스로 완전한 허구를 구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현실의 사실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출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해석하고 재편집함으로써 현실을 비틀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섹션의 출판물은 명시적 현실과 이에 대한 비틀린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는 경험을 제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나 기획에 뒤따르고 그 안의 부분집합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기획자, 연구자로서의 작가상이 등장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개별의 출판물과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여러 결과물이 동시에 존재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영주 작가의 <돌과 요정> 프로젝트에서는 세 개의 책자가 만들어졌고 그것과 연동되는 영상, 회화 등의 작업으로 전시를 해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임영주 작가의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영상 작업을 상영하는 일종의 영화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www.imyoungzoo.com](http://www.imyoungzoo.com)). 특별히 이번 전시에 맞춰 책과 연동되는 영상들로 상영 일정을 조정해놓는다고 하는군요. 이 프로젝트를 꼼꼼히 살펴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아, 참고로 옆 섹션에는 노재운 작가의 웹-영화관 <비말라키넷([www.vimalaki.net](http://www.vimalaki.net))>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볼까요? 조금만 힘을 내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세 개의 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각각 콜렉티브의 방, 잡지의 방, 퍼블리셔의 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F는 2000년대 이후 활동한 소위 콜렉티브라고 명명할 수 있는 작가들의 출판물입니다. 주로 도시사회와 정치적인 문제에 반응하고, 이에 대한 관찰과 개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활동의 부산물로 시각 인쇄물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 보면, 현실을 재현하는 전략으로서 출판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그 필연성에 대해서도 말이죠. F는 예술가들이 만드는 잡지의 방입니다. 잡지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일반 단행본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출판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제나

관점, 대상에 대해 시간을 두고 강도 높은 탐구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죠. 잡지는 그것을 만드는 주체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있는지, 어떤 토픽을 설정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중요한 네트워크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잡지를 정기적으로 만드는 네트워크와 받아보는 네트워크는 일시적인 느슨한 공동체가 되죠. 마지막으로 F는 출판 그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을 소개합니다. 한쪽 벽면에는 “A BOOK MUST BE THE AXE FOR THE FROZEN SEA WITHIN US”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2009년 만들어진 일종의 출판 컬렉티브 AC퍼블리싱의 것이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은유는 출판을 통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지, 또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는 무엇이고 책은 어떻게 그것을 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시간을 가로질러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섹션에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출판이 모여 있습니다. 음악가의 레이블도 있고, 디자이너의 출판사도 있고, 진(zine)을 만드는 문화공간도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유통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정한 콘텐츠를 드러내는 형식을 결정함으로써 말이죠. 특히 어떠한 생산양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꽤나 중요하게 생각해볼 만합니다. 어쨌거나 출판은 긴 역사를 통틀어 그러한 생산양식을 이용하거나 배반함으로써 능수능란하게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으니까요.

이제 간략한 전시장 투어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단이나 문, 의자 등 여기저기 묶여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을 텐데요, 실크스크린으로 텍스트가 인쇄된 다양한 모양의 천 말이에요. 이것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출판사 오노마토피에서 2017년 진행했던 <We Are the Market!> 프로젝트의 마니페스토를 번역하고 재인쇄한 것입니다. 이 마니페스토는 원래 웹용 포스터로 제작되었는데, 이선주는 이를 아주 자의적인 관점에서 번역하고 천이라는 지지체에 인쇄하여 서울 도시 곳곳에 묶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 번역-출판 작업은 하나의 콘텐츠가 어떻게 시공간을 뛰어 넘어 다양하게 물질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출판은 현실에 깊숙이 침투하고 그것을 교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두요. 그런데 이 작업은 이번 전시의 섹션에서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층으로 다시 돌아와 한 벽면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통해 전시장에서 본 작업들의 정리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남몰래 목록을 더해가고 있을터이니 시간날때마다 슬쩍슬쩍 구경해도 재미가 쏠쏠하겠죠? 잠깐만요, 그런데 화면에 떠다니는 귀여운 녀석이 보이시나요? 커서로 쫓아가 (모바일 디바이스라면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클릭을 하면 여러분께 말을 건넬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신제품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 기반하여 그 시스템의 기술을 이용한 기생형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직접 어떤 공간을 새로이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간에 달라 붙어 그것을 비틀거나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는 장난스러운 개구장이에 더 가깝죠. 화면의 저 분홍색 친구는 절대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시 기간 동안 하루가 달리 몸집이 불어난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제 이 전시의 간략한 투어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어요. 이 전시의 부제에 쓰인 ‘능동적 아카이브’는 헝가리의 아티스트-런 스페이스 아트풀(Artpool)에서 1979년 만들어진 아카이브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트풀은 “단지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을 통해서도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아카이브와는 다르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과거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수장고로서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생산장소로서의 아카이브를 상상했던 것이죠. 이는 문화에 대한 억압과 일방향적인 통제가 있었던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강한 입장표명이자 저항의 전략이었을 테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대상이 되는 오늘날 이 상상은 더 시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브 재료를 능동적으로 교통시키고 유통시키며 끊임없는 유통의 상태에 놓아두는 것, 그것은 결국 위계를 생성하는 선형적 역사가 아닌 갱신되고 재맥락화되는 윤리적 척도로서의 역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이브 모델은 아티스트 퍼블리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 퍼블리싱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 어떠한 체계 안에 자리시켜두기가 애매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픽션이라는 이름으로 가로지를 때, 우리는 비로소 NO-ISBN의 세계에서 유행하는 가능한 세계들을 힐끗 볼 수 있을 겁니다.



www.imyoungzoo.com/timetable

THEATER IM YOUNGZOO

THEATER

SCREENING SCHEDULE

LIVE

10:00 ~ 10:36	<애동 爕束 AEDONG>
11:00 ~ 11:08	<대체로 맑음_Generally Fair>
11:30 ~ 12:15	<돌과 요정_Rock and Fairy>
12:30 ~ 12:45	<워터/미스트/파이어/오프_WATER/MIST/FIRE/OFF>
13:00 ~ 13:13	<극광반사_Aurora Reflection>
14:00 ~ 14:08	<대체로 맑음_Generally Fair>
13:30 ~ 13:41	<총총_STARRY STARRY>
14:30 ~ 15:15	<돌과 요정_Rock and Fairy>
15:30 ~ 15:45	<워터/미스트/파이어/오프_WATER/MIST/FIRE/OFF>
16:00 ~ 16:13	<극광반사_Aurora Reflection>
16:30 ~ 16:41	<총총_STARRY STARRY>
17:00 ~ 17:08	<대체로 맑음_Generally Fair>
17:30 ~ 18:15	<돌과 요정_Rock and Fairy>
18:30 ~ 18:45	<워터/미스트/파이어/오프_WATER/MIST/FIRE/OFF>
19:00 ~ 19:13	<극광반사_Aurora Reflection>
19: 30 ~ 19:41	<총총_STARRY STARRY>
20:00 ~ 20:08	<대체로 맑음_Generally Fair>
20:30 ~ 21:15	<돌과 요정_Rock and Fairy>
21:30 ~ 21:45	<워터/미스트/파이어/오프_WATER/MIST/FIRE/OFF>
22:00 ~ 22:13	<극광반사_Aurora Reflection>
22:30 ~ 22:41	<총총_STARRY STARRY>

ALL DAY LONG

00:00-24:00	<풍력_Wind Force>
00:00-24:00	<석력_Rock force>
00:00-24:00	<테스트 힘 Test_Force>
00:00-24:00	<테스트 힘 Test_Force>
00:00-24:00	<물체 발견_Object Discovery>
00:00-24:00	<테스트 물질_Test Material>

(Talk) 《출판\_기념회》展과

AC퍼블리싱\*

참여: 호경윤(★★), 윤사비(★★★)

일시: 2018년 4월 7일(토), 17:00-18:00  
신청 인원: 30명

(★) 미술 매체로서의 아티스트 퍼블리싱을 실험했던 전시 《출판\_기념회》(2008, 갤러리 팩토리)의 기획자 호경윤과 참여 작가 윤사비를 초청하여, 당시 독립 출판을 둘러싼 환경을 기억하면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 호경윤: 아트저널리스트. 현재 계원예술대학교 순수미술과에 출강한다. 미술 월간지 『아트인컬처』 편집장 및 201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했으며, 《출판\_기념회》 등을 기획했다.

(★★★) 윤사비: 작가. <윤사비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2007, 인사미술공간)를 진행했다. 2009년 독립 출판 콜렉티브 AC퍼블리싱을 운영, 《TIMBER!》(2013, 아트스페이스풀)을 개최했다.

(Lecture) 『MAGAZINE』,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참여: 강정석(★★)

일시: 2018년 4월 14일(토), 15:00-16:30  
신청 인원: 30명

(★) 『MAGAZINE』은 ‘비디오 게임 이후’의 게임을 다루는 게임 잡지다. 그런데 비디오 게임 이후는 무엇이고, ‘이후의 게임’은 또 뭘까? 이번 토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이다.

(★★) 강정석: 미술가. ‘비디오 게임 이후’의 게임에 관한 잡지 『MAGAZINE』을 발행하며, 기획 기생형 플랫폼 <피아★방과후>를 공동 운영 중이다.

(Lecture) 예술과 학술연구,

그리고 출판의 관계\*

참여: 이소요

일시: 2018년 4월 21일(토), 15:00-16:00  
신청 인원: 30명

(★) 연구기반 예술(research-based art)을 도서 형식으로 발표하기 위해 1인 출판사를 시작한 이소요가 ‘연구’, ‘실험’, ‘아카이빙’ 등 학술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예술 창작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특성과 혼란들에 대해 말한다.

(★★) 이소요: 미술작가. 과학적 생물 이미지의 역사와 사회 배경에 관심을 가지며, 2017년 여름, 1인 출판사 『생물과 문화』를 시작했다.

(Lecture) 벽과 그리드,

미술책에 관한 뻔뻔한 이야기\*

참여: 현시원

일시: 2018년 4월 28일(토), 15:00-16:00  
신청 인원: 30명

(★) 미술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컨텐츠를 어떻게 책을 통해 다시, 처음, 오랫동안 볼 수 있을까? 앙드레 말로의 ‘벽 없는 미술관’부터 본인이 기획한 《도면함》(2017, 시청각) 등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미술책이 던진 질문들을 게보 없이 (이미지를 보며) 따라가 본다.

(★★) 현시원: 큐레이터로 이미지와 미술에 관한 글을 쓴다. 시청각 공동 디렉터이며 저서로는 『한 시간 총서 2 - 미술 글쓰기와 큐레이팅』(미디어버스, 2017), 『사물 유람』(현실문화연구, 2014) 등이 있다.

(Lecture) 단명자료:

2010년대의 무상한 아카이브들

참여: 윤원화

일시: 2018년 4월 28일(토), 16:30-17:30  
신청 인원: 30명

(★) 2012년 문지문화원 사이 다원예술 아카이브 <아트폴더>에서 윤원화가 진행한 비관습적 출판 리서치와, 같은 해 미디어버스가 전시한 소규모 출판 컬렉션 <공통의 목록>을 바탕으로, 2018년 『픽션-물: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등동적 아카이브』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리뷰하고 아티스트 북 아카이브의 조건과 의미를 따져 본다.

(★★) 윤원화: 시각문화 연구자. 저서로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 『문서는 시간을 재/생산할 수 있는가』, 역서로 『광학적 미디어』, 『기록시스템 1800/1900』 등이 있다.

(Workshop) DIY 페미니즘 진

만들기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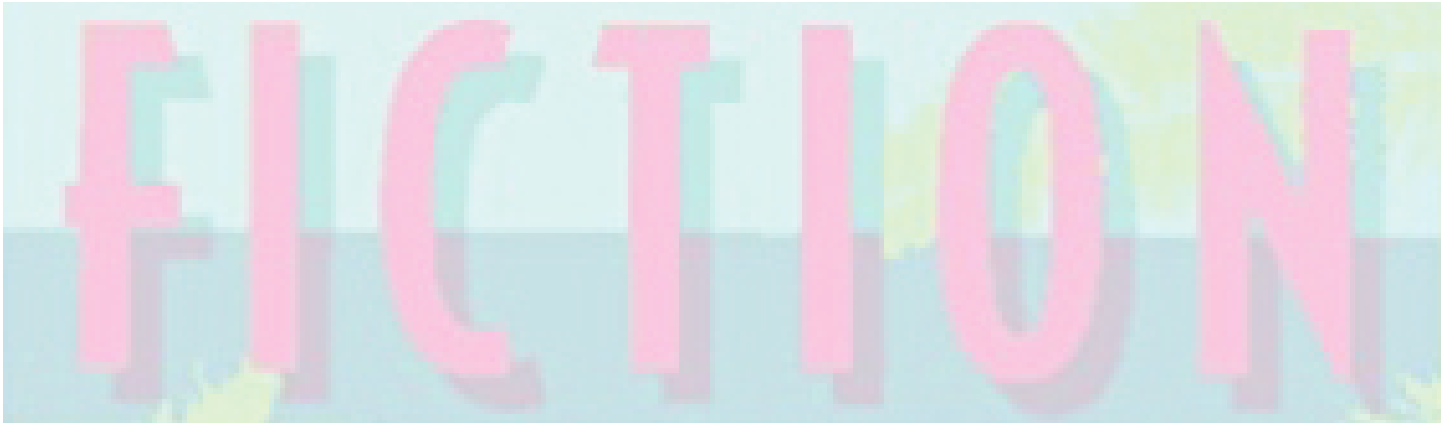
강사: 리스투더시티(★★)

일시: 2018년 5월 5일(토), 14:00-15:00  
신청 인원: 15명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함께 리서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페미니즘 진을 만들어본다. 주제는 예술계 성폭력, 성희롱 문제, 예술대학과 기관의 문제 리서치, 페미니즘 운동 시각화 리서치 등 몇 가지를 미리 제시할 예정이다.

(★★) 리스투더시티: 리스투더시티는 디자인 예술 콜렉티브로 2009년 결성되어 현 멤버 외에도 많은 외부 협업자와 작업을 함께 해오고 있다. 주로 개발 사업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며 도시와 도시외부 공간의 공통성(the commons)에 대해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기록되지 않는 역사들과 존재들을 가시화해왔다. 독립잡지 『어반드로잉스』를 비롯한 출판과 영상작업과 전시, 직접행동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픽션-툴: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능동적 아카이브  
Tools for Fiction: Active Archive for Artist's Publishing

전시기간: 2018년 4월 6일(금)-5월 5일(토)

전시장소: 인사미술공간

관람시간: 11:00-19:00(매주 일, 월 휴관)

기획: 이한범

리서치: 권태현, 이민주

그래픽 디자인: 신신

공간 디자인: 김동희, 박준영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인사미술공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협력: 아르코아카이브, 아트선재센터, 아트스페이스폴

문의: 인사미술공간(02 760 4722)